

세계 최대 축산박람회 EuroTier를 가다

- 125년 역사, 살아있는 세계 축산의 산실 -



▲ 세계 최대 축산박람회가 열리는 하노버시 EuroTier 전시장 입구

세계 최대 축산박람회인 EuroTier 2010이 지난 11월 16~19일까지 4일에 걸쳐 독일 하노버 국제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1년 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1, 9월 21~24, 대구 EXCO)를 준비하는 국내 박람회 주관단체 및 관계자들은 새로운 정보 및 노하우를 얻기 위해 이곳 하노버를 방문하였다. 본회(대한양계협회)가 2011년도 박람회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이번 팀 구성은 본회 이준동 회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을 비롯 실무자 및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참관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번 시찰을 통해 EuroTier 2010 축산박람회를 살펴보고 내년도 축산박람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 세계 최대 축산박람회가 열리는 하노버시 EuroTier 전시장 입구



▲ 전시장 입구에서는 표를 구매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입장을 시키고 있다.(성인기준 1일 입장료는 약 3만원 정도)

전 세계 49개국 1,900여 업체 참가

인구 69만이 살고있는 독일 하노버는 자동차, 식품, 가내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통해 세계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독일에서는 하노버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하노버시 세수의 절반 이상을 이곳 박람회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박람회 도중 우리 일행과 공식적으로 만나 카를 쉬뢰저(Karl Schlösser) 박람회 책임자에 의하면 하노버에서 박람회가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25년 전이라고 할 만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박람회로 자리잡았다.

이번 박람회는 총 49개국에서 1,939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전시장 면적만 해도 170,594㎡로 우리나라 축산박람회 13,200㎡의 약 12배에 달한다. 본 전시회는 총 9개 관으로 분류되어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소, 돼지, 닭은 물론 사료, 약품과 함께 2개관에 걸쳐 바이오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시국들을 볼 때 물론 독일이 1,161개사(60%)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국인 네덜란드(147개사), 프랑스(92개사), 이탈리아(59개사), 덴마크(56개사)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물론 유럽이 아닌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고른 참여를 보여 말 그대로 국제 전시회를 방불케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도 한국국제 축산박람회 홍보부스를 비롯, 다연산업, 앤텍바이오, 인터히트 등 총 8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국내 축산업을 외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 KISTOCK 2011 이준동 회장(좌)과 유로티어 Karl Schlösser 전시책임자(우)가 공식적으로 만나 서로의 관심사항 논의와 박람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내실 있는 대회 운영, 볼거리 제공

전시장에 찾아오는 참관객은 입장권을 반드시 구입해야 만 입장이 가능하다. 하루 입장권은 21유로(약 33,600원), 전일 입장권은 40유로(약 64,000원), 학생은 12유로(19,200원)이며, 어린이 딸린 아이들은 공짜로 입장을 할 수 있다. 입장권을 구입해서라도 그 이상의 정보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행사를 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료 전시회가 있지만 축산박람회는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2만명 정도의 참관객이 방문할 정도로 성시를 이루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 전시장을 사용하여 우시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생우 전시 및 경매장은 살아있는 축산을 실감할 수 있는 경험장이기도 했다.

박람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테이프커팅 등 개막식 행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 특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전시회 개최하는 날 저녁 모든 참가업체를 초청해 환영만찬을 벌이는 것으로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각종 세미나도 전시회중 개최되었는데 부스



1. 컨트롤 박스 등 각종 기기 2. 병아리, 종란 수송차량 전시 3. 실내 먼지 및 냄새 집진기 4. 병아리 휴식방(4일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5. 일종의 평사 복지형 케이지 6. 필드에서 위생적으로 먹이를 줄 수 있는 급이기



▲ 대표적인 육종회사 아비아젠

중간 중간에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각 축종별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다.

양계분야에서는 동물복지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답게 복지형 케이지와 필드에서 방사하면서 손쉽게 급이 및 급수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공해와 냄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집진기도 새로운 신제품임을 알 수 있었다.

4만~20만개의 종란과 병아리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운송용 차량도 다양하게 선을 보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금년에 출시되어 선보인 초생추 보관실이었는데 생후 4일동안 고르게 클 수 있도록 보관해 주는 장치로 태어나서 곧바로 농장으로 이동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균일도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장치라고 한다. 이는 환기부터 온도까지 쾌적하고 적당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균일도는 물론 일반 닭들보다 2배 이상 크고 건강한 상태로 농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충분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울퉁, 체리부로, 마니커 등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해 국내 마케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축우와 양돈이 주를 이뤘다. 양계분야는 60여개

업체만이 참여하여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음 대회에는 양계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라 이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 축산박람회 홍보활동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측과 EuroTier박람회 측은 이미 MOU를 체결하여 서로 전시부스를 주고받으며, 자국의 박람회를 알리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이력(11D52번)으로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이준동 회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행은 각 부스를 찾아다니며 우리나라 축산박람회를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각 축종별로 실무자들이 참여한 만큼 그 분야를 각각 맡아 활동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티어는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2012년(11월 13-16)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축산박람회가 각 단체를 돌면서 개최되다보니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축산박람회 부스에서 박람회 개최의 성공을 기원하는 파이팅이 있었다.(단원들은 각 부스를 돌면서 한국축산박람회를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차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소비자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마련된 만큼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더 알고 찾을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박람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유로티어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권으로 교환해 준다든지 입장료 등으로 경품행사를 벌여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걸려있는 만큼 해외 참가자와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 제품 수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개최되는 박람회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유네스코로 지정된 하회마을 역사를 자랑하는 해인사 등 주변 관광지 소개를 통해 관광수입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회가 끝나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정부나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금을 확보, 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축산업의 미래를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125년 전통의 축산박람회가 뿌리를 내렸듯이 우리도 1991년 양계박람회를 모태로 시작된 축산박람회가 영원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가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